

01 교회소식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

성구를 암송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권과 인도를 받기 위해 힘써 온 성도들이 제18회 말씀퀴즈대회에서 경합을 벌인다.

02 생명의 말씀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우리가 성결되어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선하게 생각하며 진리로 상대의 마음을 분별할 때 진실을 읽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귓속의 벌, 기도 받고야 꺼냈어요!”

인도 빠트마 성도는 귓속에 들어간 벌을 각종 방법으로도 꺼낼 수 없었으나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손쉽게 꺼낼 수 있었다.

04 간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태국 워라퐁 목사 와 만민하게수련회 시 제철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임정훈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856호 2018년 9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 축복의 비결이죠!”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 제18회 말씀퀴즈대회



9월 16일 주일 저녁예배 후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 '제18회 말씀퀴즈대회' 본선 및 결선이 본당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열린다.

평소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 집이나라”(딤후 4:5)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성결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사랑장’, ‘팔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 성결을 이루기 위한 말씀과 더불어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성구 한 절을 암송할 것을 당부해 왔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는 매주 주보에 ‘금주의 성경구절’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에 남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성도들의 말씀 무장을 돕기 위해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6일 1차, 2차 예선을 거쳐 총 96명(본교회 70명, 지교회 2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이들의 경합을 통해 현장에서 결선 진출자가 가려진 후 곧바로 결선이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주보에 1년간 실린 ‘금주의 성경구절’(2017년 8월~2018년 7월)이며,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문제도 나온다. 또한 방청객들을 위한 즉석 퀴즈와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다.

올해도 16세에서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출전하였는데, 최연소 출전자는 박주엘 형제(대전만민교회)이며 최고령 출전자는 서근중 장로(본교회)이다.

그런가 하면 김기석 목사는 아내 이교은 권사와, 조민경 전도사는 모친 전병희 권사·오빠 조석기 형제와 출전하며, 박흥영 목사(대전만민교회)는 아들 박주엘 형제와

함께 본선에 올라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3년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박주엘 형제는 “여섯 살 때부터 성구 암송을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아는 성구가 나오면 더 집중해서 듣게 되니 영적으로도 좋고, 암기력이 발달되니까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교 1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뻐지요”라고 말했다.

아들, 딸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본선에 나온 전병희 권사는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궁구하다가 시작

하였는데, 저에게는 본선 진출 자체가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구를 암송하면서 감동을 받고, 실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딱딱 떠오르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상패와 성지순례 티켓이 주어지며,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결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장려상이,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격려상으로 상패와 상금이 주어진다.

인도차이나반도 목회자 세미나 열려



강사 이재원 목사(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담임)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십자가의 도’ 중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와 ‘영혼육’에 관해 증거하였다. 참석자들은 십자가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함 속에 밝히 풀어 전해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도차이나반도 목회자 세미나’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대상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국경도시인 메사이 소재 메사이교회(담임 쿤제욱 전도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은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감추어진 비밀, 주님의 십자가 섭리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외에도 간증, 찬양, 성령충만기도회와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성령 안에 더욱 하나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어느 날, 한 여인이 과자와 책 한 권을 사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녀의 좌석은 험상궂은 청년의 옆자리였지요.

기차가 출발한 뒤 책을 읽던 그녀가 문득 청년을 보니 자기 과자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 허락도 없이 남의 과자를 먹네? 인상도 험악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며 눈치를 주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과자라고 표현하기 위해 함께 과자를 먹었는데도 청년은 개의치 않았지요.

기차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청년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반으로 톱 자르더니 한쪽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지요. 여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챙기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샀던 과자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과자를 마음대로 먹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면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인 것처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청년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남의 것을 먹는다고 단정해 버렸지요. 자신의 가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친절을 베푸는 상대를 나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편벽되지 않은 마음으로 보아야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하든지 편벽이 없으려면 긍휼이 있어야

‘편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한결같습니다. 외모나 경제적 여건, 학벌 등 상대가 가진 조건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지요. 무엇을 하든지 편벽이 없으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성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볼록렌즈로 보면 뚱뚱해 보이고 오목렌즈로 보면 홀쭉해 보입니다. 만일 렌즈에 비치는 모습만 보고 “뚱뚱하다. 말랐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 대로 말한다” 하겠지만, 분명히 실제와는 다르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만큼 좌우로 치우칠 수 있으니 상대의 언행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상대를 판

단하고 정죄합니다. 이처럼 편견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거짓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어떠한 모습을 본다 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반면, 편벽됨은 판단과 정죄로 진실을 왜곡하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지요.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편벽된 시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을 두고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생각했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뜻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편벽됨 속에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보려면 편벽된 시각을 버려야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벽됨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짓의 열매를 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다투었을 때 부모가 형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동생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물으니 “형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서 그랬어요”라고 합니다.

만일 부모가 형 말만 듣고 혼냈다면 동생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소 형을 편애했거나 동생이 늘 말썽을 부렸다면 형 말만 믿는 부모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라면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벽된 시각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언행이 나옵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럴 만할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합니다. 반면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나 나쁜 선입관을 가졌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요찬양예배 [중·고등부]	11:00 PM
주요찬양예배 [아동부]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사람의 일이라면 안 좋은 소문도 금방 믿어버립니다.

“전에도 잘못하더니 또 그러네”, “그 사람 어쩐지 마음에 안 들더라” 하며 싫어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지요. 편벽된 마음이 있기에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갑니다. 바쁘거나 판생각을 하느라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시력이 나빠 못 보았거나 자신의 모습이 민망해서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쁜 쪽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무례하다’ 하거나, ‘내게 감정이 있나’ 하고 자신의 지식과 감정 안에서 해석합니다. 이처럼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만큼 편벽된 시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동원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눈이 가려져 진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쳐 말합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담을 통해 어떤 답을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요. 어떤 경우는 상담을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에 잘 분별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3. 범사에 편벽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에게 직접 들어보면 사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편벽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약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도 진리 안에서는 편벽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편벽되거나 친분이 두텁다고 정에 치우친

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흔히 강자와 약자가 다룰 때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 편을 들면 비겁한 행동인 것처럼 여기지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2)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업관이나 편견을 가지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듣는다 해도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남의 말만 듣고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만으로 단정한다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자세히 살피지 않고 상대의 말만 믿는다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이익이 눈앞에 있다면 더 쉽게 상대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봤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참고는 하되, 당사자가 다방면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거래할 상대가 신뢰할 만한지, 수익성이 확실히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하지요. 비단 사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마음을 더 반듯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감정과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서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가령, 친하지 않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해서 질서를 어긴다. 불의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웃집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정부터 올라오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 아이가 때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맞은 상처만 보고 화를 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중에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 자체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요. 이처럼 편벽된 마음이 있으면 쉽게 눈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마음에 감정이나 사심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자신이 직분상 위사람이라면 더욱 근신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볼 때 치우치지 않게 분별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한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과 욕심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분별하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면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전후 상황까지도 정확히 분별이 됩니다. 진리에 비추어 상대의 마음을 분별하고, 어떠한 것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벽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결되어야 합니다. 곧 미움, 혐기, 시기, 욕심, 판단, 정죄, 자존심, 교만 등 마음의 죄악들을 모두 버려야 하지요.

이렇게 성결되어 무엇이든지 선으로 보고 느끼며, 선으로 생각해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며 진리로 분별하니 당연히 판단 정죄도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게 되므로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들보와 같이 큰 죄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편벽과 거짓 속에서 상대의 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신속하게 소유하여 편벽된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마음속의 죄악까지도 버림으로 수정같이 맑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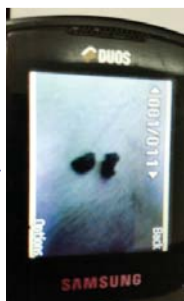
“귓속에 들어간 벌, 기도받은 뒤에야 꺼낼 수 있었어요!”

빠트마 프리아 성도 (36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올해 1월 19일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 무언가 들어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집 근처에 검은 벌이 많았는데, 바로 그 벌이 제 귓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벌이 밤새 귓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움직여 저는 귀와 머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남편은 귓속에 코코넛 기름을 넣어 벌을 꺼내려 했지만 오히려 벌은 더 깊숙이 들어갔지요.

열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곁흔해 큰딸이 장성했기에 저는 다



음날 아침,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벌을 꺼내지 못하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큰딸이 담임 한정희 목사님에게 전화로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계속 받으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일을 핑계로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받았지요. 직장에너지막이 출근한 후에도 다시 환자기도를 받으며, 동료들에게 “오늘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벌이 귀에



▲ 빠트마 프리아 성도(왼쪽에서 세 번째)는 자녀들 또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여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큰딸 니웨다는 요실금, 아들 데바라지는 신장병을, 작은 딸 빠베다는 갑상샘 항진증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서 나올 거예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오후 4시 30분경,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귓속에서 죽어 있는 벌을 핀으로 꺼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을 통해 온전한 주일성수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희한한 능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라퐁 잉와타나쿤 목사 (59세, 태국 차이쁘라칸만민교회)



2008년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권능’ DVD를 보면서 저는 성경상의 권능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 한국의 만민중앙교회를 찾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하시면서도 영적인 권세가 대단하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저는 손수건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 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 (행 19:11~12)이 나타난 것처럼

2009년 5월, 만민의 지교회로 가입했습니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엮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전신이 마비된 소녀가 살아났는가 하면, 무당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 ‘나사렛’으로 마을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요. 이 외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에 제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면 이내 치료를 받아 행복하게 간증하곤 합니다.

저 또한 2017년에 있었던 인도차이나반도 목회자 세미나 시 감사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심장병과 전신 무기력증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지요.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후 저는 GCN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며

올해 1월에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한 여성이 유방암 말기의 고통 중에서 놓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같은 고향사람인 그분과 통화를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휴대폰 위에 권능의 손수건을 엮고 기도해 주었지요. 이후 그녀의 몸이 호전되어 일어나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제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만민’이기에 올해 8월 초,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열린 만민하계수련회에 네 번째로 참석하였습니다.

첫날 교육을 통해 더욱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며 너무나 감동이 되었는데, 다음 날 캠프파이어 시간에 찬양하던 중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가슴 통증이 사라지는 축복을 받았지요.

제 아내(다우암 생드안)는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며 GCN방송을 켜놓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청하며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가 방송될 때는 TV 앞에 나와 기도받기도 하고, 직접 기도받기 원하면 아내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지요. 치료도 잘되어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으로 제 삶 속에 사랑과 권능을 가득 채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8 만민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체육대회 계주 선수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 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 하겠다고 말했지만, 야근을 한 뒤 밤늦게까지 연습이 이어지다 보니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지요. ‘그만 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자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틀 전인 8월 4일(토), 축구를 하다가 왼쪽 허벅지 앞쪽에 찢는 느낌이 들더니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리를 올리거나 걷기조차 불편했지요.

8월 6일(월) 수련회 첫째 날, 교육 시간에 ‘영계’(요 4:24)라는 제목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평안이 왔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단 위에서 환자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달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임정훈 형제 (26세, 3청년선교회)

도를 해 주실 때, 왼쪽 허벅지의 근육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되는 구나!’ 싶었지요.

과연 기도받은 뒤 바로 다리를 움직여 보니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체육대회 때에는 계

건강합니다. 그 당시 첫째 날 교육 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나며, 일어나지도 먹지도 못하고,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하지만 당회장님의 전례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은 뒤, 저를 13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던 폐렴이 즉시로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해져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치료해 주시고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알게 해 주시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선수로 출전했으며, 저희 팀이 금메달까지 따게 되어 더 기뻐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생후 4개월부터 폐렴을 앓았고 완치되지 않아 늘 병원을 전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만민의 양 떼가 된 후, 처음 참석한 만민하계수련회에서 치료받아 지금까지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서광주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지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